

1999. 06. 30.

[세계의 교육개혁] '한국의 대학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 봄 '한국의 대학생' 이란 책자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량.인생관 등 의식구조를 폭넓게 조사한 이 책자의 결론은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다' 였다.

주당 평균 학습시간을 보면 우리 대학생의 58%가 2시간 이하였다.

1주일에 2시간밖에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미국은 13.3%, 일본은 12%에 불과하다.

전공서적 독서량에 있어서도 우리 대학생의 47.4%가 3권 미만을 읽고 1권 미만을 읽는 대학생도 15.4%나 됐다.

미국 대학생의 53.3%가 8권 이상을 읽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반면 우리 대학생의 57%는 이틀에 한번 꼴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보다는 술집을 찾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대학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위기인 셈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교수나 학생들도 "한국 대학은 선진국에 비해 교육시설이 빈약한데다 학습량도 적고 토론문화.경쟁문화가 없다" 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교환학생으로 Y대에 재학중인 해외동포 羅모 (24.여.캐나다 앨버타 주립대 졸업) 씨는 "한국에서는 캐나다대학의 20%만 노력해도 따라갈 수 있다" 고 말했다.

남명수 인하대 기획처장은 "세상이 급격히 변하는데 우리 대학은 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만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아직도 과거 문화에 젖어 있다는 뜻이다.

1999. 06. 30.

[세계의 교육개혁] 10. '뿌리깊은 나무'로 키운다

미국내 교육의 질 (質)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라이스대학은 공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학교 3위이기도 하다.

어쩌다 맞이하는 '13일의 금요일' 은 해방의 날. 평소 워낙 공부 부담이 많다 보니 그 발산

도 볼 만하다.

얼굴에 면도 크림만 바른 채 나체로 뛰어다니고, 옷을 입고 풀장에 뛰어드는 학생들로 캠퍼스는 난장판으로 변한다.

신혼 초 이 대학에 유학했던 김모 (39) 교수는 "4년 동안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부부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다" 고 털어놓았다.

캠퍼스 바로 앞의 정신과 병원에는 스트레스를 상담하려는 학생들로 항상 만원이다.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있는 인구 4만5천명의 채플힐시는 대학생이 2만4천명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대학도시. 도심을 관통하는 이스트 프랭클린 스트리트에 술집은 불과 세곳. 그나마 오후 9시면 문을 닫는다.

학생들이 독서실처럼 이용하는 카페가 네곳이 있고 나머지는 교회.우체국.책방.복사문구점이 눈에 띈 뿐이다.

우리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구장이나 오락실.비디오방.여관.미용실은 찾을 수 없다.

저널리즘 스쿨의 토머스 바워즈 부학장은 "공부 이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없게 분위기가 차분하고 안정돼 있다" 고 말했다.

미국 대학들에는 학문적 기초 없이는 응용도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넓고 깊게 깔려 있다. 필사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배겨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한 과목을 이수하려면 분기별로 4개의 리포트와 중간.기말고사 2~4차례는 기본이다.

매주 초 퀴즈식 테스트가 실시되고 확실한 이유없이 2~3차례 결석하면 아예 잘린다.

여기에다 문답식 강의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교수가 지정하는 매주 3권 이상의 참고도서를 읽어내야 한다.

혹독한 교육 때문에 미 쿠퍼 유니언대 학생들은 "예습량을 줄여달라" 고 시위를 벌일 정도. 대학측은 학문 연구의 마라톤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유독 체력단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교육의 저력은 한국의 고3 수험기간을 능가하는 강도 높은 대학교육을 통해 다져지고 있다.

고교 때까지는 세계 학력평가에서 늘 하위를 맴돌던 미국이 대학졸업생 평가에서는 예외없이 톱 랭킹을 휩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미 인문과학의 전당으로 꼽히는 에머스트대학은 대학만 있고 대학원은 없다.

학문적 기초를 단단히 다진 뒤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으려면 그 분야 최고의 대학원을 찾아 떠나라는 게 이 대학의 원칙이다.

이 대학 신입생은 1년만에 10%가 캠퍼스에서 쫓겨난다.

4년만에 졸업할 확률은 50%를 밑돈다.

졸업에도 논문제출과 함께 3시간에 걸친 '죽음의 관문' 이 기다리고 있다.

4명의 교수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밑바닥까지 보여주어야 한다.

애머스트대 스테이시 슈마이텔 (37) 홍보실장은 "기초가 튼튼해야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며 "우리는 전문가보다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한다" 고 말했다.

이런 덕분에 학생수 1천6백명의 초미니대학이지만 역대 18명의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가운데 3명이 애머스트대 출신이다.

본토 반환 2주년을 맞는 홍콩에는 '우질 (優質) 교육기금' 이란 게 있다.

50억 홍콩달러 (약 8천억원) 로 출발, 경제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60억 홍콩달러로 늘어난 기금이다.

전적으로 영어교육에 사용되는 이 기금은 중국에 귀속되도 영국식 영어의 근본을 잃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홍콩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이 기금은 최근 1백50명의 외국인 영어교사를 채용하면서 연봉 80만 홍콩달러 (약 1억2천8백만원)에다 주택수당 등 1인당 1백만 홍콩달러 이상을 약속했다.

파격적인 대우를 좇아 당연히 세계 최고의 영어교사들이 몰려들었다.

영국 런던에 주재원으로 파견나간 S기업尹모 (46) 부장은 지난해 초 IMF위기로 철수하면서 고민 끝에 고교 2년생인 딸을 혼자 현지에 남겨놓았다.

연간 1만2천달러의 학비.생활비가 큰 부담이었지만 한국의 과외비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과외를 통해 편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주는 영국 교육이 딸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尹부장이 믿는 것은 영국의 교육원칙이다.

영국 집권 노동당이 내건 정책공약은 "2류 교육 위에서 1류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 로 시작되고 있다. 교육원칙 1조는 더욱 구체적이다.

"16세 이전의 모든 학생들에게 읽기.쓰기.말하기와 산수학습을 반복시킨다.

" 철저한 기초학습을 통해 교육의 뿌리부터 확실하게 다져놓겠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다음 회에는 시리즈 총정리 좌담이 나갑니다>

[세계의 교육개혁] 7. 열등생도 만족해 한다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오렌지 카운티의 이스트 채플힐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준호 (16) 군.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 2년간 객원 연구원으로 파견된 부친을 따라 지난해초 이 학교로 전학왔을 때만 해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영어도 못하고 한국 고교와는 교과목에도 차이가 많아 진도를 따라갈 자신이 없었던 것. 그러나 이같은 걱정은 모두 기우였다.

교사와 급우들은 한결같이 친절했다.

말이 안통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도 없었고, 모든 학업플랜을 자신이 짤 수 있어 적응하기가 아주 쉬웠다.

영어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을 통해 처음부터 새로 배울 수 있었고, 교과목은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게 골라 들으면 됐다.

이 고교는 영어 4학점, 수학.사회.과학 각 3학점, 체육 1학점, 예술.보건.기술 각 0.5학점, 선택 (제2외국어 등) 4.5학점 등 20학점 (하루 한 시간씩 한 학기 배우면 0.5학점) 을 따면 졸업할 수 있다.

그런데 과목마다 여러개의 세부과정이 개설돼 있어 그중 어느 것을 들어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예컨대 예술의 경우 미술.음악.드라마로 과목이 나뉘고, 미술은 다시 디자인.회화.조각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식이다.

음악도 음악이론.합창.밴드.재즈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학생들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해 들으면 된다.

수학도 약 15개 세부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학생 스스로가 판단, 어렵거나 자기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안들어도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과목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각 과목은 크게 ▶일반▶아너스 (Honors) ▶고급 (AP:Advanced Placement) 3등급으로 나뉜다.

'일반' 은 아주 쉽고 기초적인 것, '아너스' 는 보다 어렵고 가산점을 받는 수준, 'AP' 는 대학의 교양과목 수준이다.

아너스나 AP는 숙제가 많고 좋은 학점을 따기도 어렵지만 대신 유리한 점도 있다.

평균학점을 산정할 때 아너스 과목은 1점, AP 과목은 2점의 가산점을 받기 때문.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일반영어 대신 아너스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 C학점을 받으면 B학점을 받은 것

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내신성적을 중시하는 미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이들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고교때 AP 과목을 들으면 대학에 가 해당 교양과목을 면제받는 수가 많아 대학 조기졸업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아너스나 AP에 연연하지 않고 학교도 이를 강요하지 않는다.

초등학교를 포함, 대부분의 학교가 서머 스쿨을 운영한다.

여름방학 중 매일 5시간씩 3주를 배우면 그 과목은 한 학기를 이수한 것과 같이 학점을 준다.

조기졸업 희망자와 학업미달자에게 다같이 매우 유용한 제도다.

서머 스쿨 등록여부 역시 선택사항이라 신청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우등생과 열등생을 다같이 만족시키는 제도가 활짝 열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학교 개선법' 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차터 (특별허가) 스쿨' 은 '우등생도 없고, 열등생도 없는 교육' 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학교다.

우리로 치면 대안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차터 스쿨은 최근 미국 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신 공교육' 바람의 진원지다.

차터 스쿨은 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합심해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하며, 제 각각 '수학,과학 중심의 수업' '예술을 중시하는 교육' 등 독자적인 색깔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의 학업 취미와 적성에 맞춰 학교를 골라 가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열등생이 되고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차터 스쿨의 평균 학생수는 1백50명. 공립학교의 3분의1 수준이다.

학생수가 적다 보니 교사는 학생 하나하나에게 골고루 관심을 갖고 학업을 지도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차터 스쿨 지원금으로 1억달러를 책정했다.

92년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34개주에서 1천2백85개교가 문을 열었다.

총 인원은 2백50여만명. 입학을 위한 대기자가 1천명이 넘는 명문이 부지기수다.

시리즈 취재팀

▶국제부 = 김동균 (팀장) , 이철호, 최형규, 이훈범, 김현기 기자

▶특과원 = 김석환 (모스크바) , 배명복 (파리) , 신중돈 (뉴욕) , 김종수 (워싱턴) , 오영환, 남윤호 (도쿄) , 유상철 (베이징) , 진세근 (홍콩) 기자 ▶해외취재 = 민병관, 권영민, 이상일, 이규연, 강서규, 정선규, 예영준 기자 ▶사회부 교육팀 = 오대영, 강홍준 기자